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61호 【루게 제24574호】 주제 103 (2014)년 6월 10일 (화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평양시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을 현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평양시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을 현지도하시였다.

황병서동지, 최룡해동지, 한광상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평양시위원회 책임비서 김수길동지와 농장의 일꾼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16차례, 위대한 장군님께서 4차례 다녀가시며 농업생산의 획기적발전과 농장원들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신 불멸의 명도사적이 뜨겁게 깃들어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현명한 명도밑에 농장이 수도시민들을 위한 남새전문생산기지로 전변되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농장의 일꾼들과 농장원들이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온실남새생산에서도 본보기를 창조하고 그것을 일반화해야 성과를 확대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을 온실남새생산의 전형단위로, 온 나라의 본보기농장으로 꾸리자는 것이 당중앙의 결심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에서는 과학적인 온실남새재배방법을 완성하여 정보당수확고를 결정적으로 높이며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농장의 생활환경과 면모를 완전히 일신시켜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남새온실을 장려하여 인민들에게 신선한 남새를 공급하기 위하여서는 온실건설과 운영을 당적으로 틀어쥐고 힘있게 밀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평양시당위원회를 통하여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을 전국의 본보기농장으로 꾸리는 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다시 보고받고 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조치를 취하시겠다는 은정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남새온실건설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인민들의 식생활을 풍족하게 하기 위한 당의 방침을 빛나게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시정정보도반

는 크나큰 긍지를 심장깊이 간직하고 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며 여러가지 남새를 많이 생산하고있는데 대하여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 건설 및 개건한 남새온실들을 돌아보시면서 생산실례를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장천남새

전문협동농장에서 당중앙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생산능력이 큰 수심동의 현대적인 남새온실들을 새로 건설하였을뿐 아니라 이미 있던 온실들도 훌륭히 개건한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지금 무슨 남새를 재배하는가, 통풍과 관수체계를 어떻게 세웠으며 온실남새종자보장체계가

어떻게 서있는가를 하나하나 물어주시며 남새농사실례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당에서 남새온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고 장려하려고 하는것은 우리 인민들이 한겨울에도 오이, 도마도, 쑥갓, 부추와 같은 신선한 남새를 늘 먹게 하자는데 있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남새온실을 품을 들여 꾸러놓았다고 해도 재배기술을 발전시키고 남새종자보장대책을 따라세우지 못하면 실질적인 덕을 보기 힘들다고 하시면서 온실남새재배의 과학화, 집약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기상수문국을 현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기상수문국을 현지도하시였다.

황병서동지, 최태복동지, 최룡해동지, 한광상동지, 리제일동지가 동행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기상수문국의 일군들이 맞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종합예보실, 국내통신실, 국제위성통신실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기상관측과 예보사업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금 기상관측사업이 현대화, 과학화되지 못한 결과 오보가 많다고 하시면서 기상관측과 예보사업을 잘하여야 이상기후현상에 의한 재해로부터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농업과 수산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에서 자연피해를 제때에 막을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기상기후조건을 과학적으로 밝히며 일기에 보에 필요한 자료와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요구하는



기상기후자료를 제때에 정확히 보장하자면 기상수문국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기상수문사업은 나라의 경제사업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사업인것만큼 연구사,

예보원들의 책임성을 높이는것과 함께 과학기술력량을 튼튼히 꾸려야 한다고 말씀

인민의 기대에 보답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정치지도반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4호

주제103(2014)년 6월 9일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개건공사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인민군군인들과 설계가들,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력영웅칭호, 김일성상, 김일성청년 영예상, 김정일청년영예상, 명예칭호와 훈장 및 메달을 수여함에 대하여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따사로운 손길이 어리고 혁명의 계승자들인 새 세대들을 위하여서는 억만금도 아끼지 않는 우리 당의 뜨거운 사랑에 떠받들려 솟아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는 선군시대의 또 하나의 기념비적창조물이고 세상에 들도 없는 아동궁전이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워주시고 사랑해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세계에서 으뜸가는 야영소로 개건할것을 직접 발기하시고 공사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풀어주시였으며 빠른 기간에 완공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결사관철하는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의 불굴의 정신력과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는 반년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세상에 자랑할만 한 아이들의 호별,

몇쟁이공간으로 훌륭히 개건되였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가 훌륭히 개건됨으로써 학생소년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동해명승지의 장관높이 울려 퍼지게 되였으며 새 세대들에게 사회주의문명의 혜택을 마음껏 안겨주려는 우리 당의 결심이 빛나게 관철되게 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혁명적근인정신으로 새로운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개건공사를 최단기간에 훌륭히 완공하는데서 커다란 로력적위훈을 세운 인민군군인들과 설계가들,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력영웅칭호와 함께 금메달(마치와 낮) 및 국기훈장 제1급, 김일성상, 김일성청년영예상, 김정일청년영예상, 명예칭호와 훈장 및 메달을 다음과 같이 수여한다.

로력영웅칭호 3명	리광호	4명	김정일청년영예상	공훈기술자칭호 1명	공훈예술가칭호 1명
리광일	장정훈	공훈기술자칭호 2명	공훈건설자칭호 2명	리용로	국기훈장 제1급 25명
진기성	김진혁	공훈건설자칭호 2명	공훈건설자칭호 2명	김용철	로력훈장 31명
위용국	최석철	공훈건설자칭호 2명	공훈건설자칭호 2명	김정철	국기훈장 제2급 308명
김일성상 1명	김정철	공훈건설자칭호 2명	공훈건설자칭호 2명	김정철	국기훈장 제3급 804명
박창식	공훈설계가칭호 3명	공훈자문자문사칭호 2명	공훈자문자문사칭호 2명	김재원	군공메달 1 536명
김일성청년영예상 3명	차성식	공훈자문자문사칭호 2명	공훈자문자문사칭호 2명	한영남	공로메달 116명
박종원	김철웅	공훈자문자문사칭호 2명	공훈자문자문사칭호 2명	한영남	공로메달 2 840명
강철주		공훈자문자문사칭호 2명	공훈자문자문사칭호 2명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양

## 어머니당의 숭고한 후대사랑의 뜻을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자

평양애육원 종업원들의 결기모임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직 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평양애육원 종업원들의 결기모임이 9일에 진행되였다. 관개부문, 해당 단위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원장 최송환의 보고에 이어 부원 리경금, 교양원 김경심, 로동자 김혜영이 토론했다. 보고자와 토론회자들은 온 나라 아이들의 천아버지가 되시여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평양애육원을 또다시 찾으시고 국제아동절을 맞는 원아들을 추복해 주신데 대하여 감격에 넘쳐 말하였다. 저지마다 달려와 안기는 아이들을 사랑의 한복에 안아 주시고 천아버지앞에서 재물을 부리는 자식들마냥 노래를 불러 드리는 원아들에게 박수도 쳐주 시였으며 식당에 들리시어서는 명절음식이 맛있는가도 물어주시며 다신한 혈육의 정을 부여주시였다고 말하였다. 원아들에 대한 가정교육을 애육원에서 맡아할데 대한 문제, 아이들을 영양학적으로 잘 먹일 데 대한 문제, 키크기운등을 비롯한 체력단련을 정상적으로 시킬데 대한 문제 등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뜻을 언제나 잊지 않고 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워주시고 한생을 다 바쳐 사랑해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대를 이어 받들어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모든 원아들을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께 끌림이 충직한 당의 참된 아들딸들로 튼튼히 키우기 위한 교육교양사업과 관리운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갈 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교직원들은 어린이들의 건강과 위생관리를 잘하여 그들이 튼튼한 몸으로 무럭무럭 자라나도록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모든 종업원들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명도업적이 뜨겁게 어려있는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긍지높이 보육교양 환경을 더 잘 꾸려나갈데 대하여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회자들은 어머니당의 숭고한 후대사랑 가슴깊이 새기고 모든 원아들을 혁명의 대를 뜻깊이 이어나갈 믿음직한 계승자들로 훌륭히 키움으로써 당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충성으로 보답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 강계정신창조자들의 승리의 신심을 백배해주는 혁명군악의 힘찬 포성

【평양 6월 9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진군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공훈국가합창단의 혁명군가가 자강당을 진감하고있다.

방사포의 일제사격과 같은 최성으로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필승의 신심과 배신을 안겨주는 공훈국가합창단을 맞이한 자강도의 로동계급은 크나큰 감격과 흥분에 휩싸여있다.

9일 공훈국가합창단은 강계에서 지방순회공연의 첫 무대를 펼쳤다. 공연장소는 백두산철새위인의 령도를

## 공훈국가합창단 자강도에서 첫 공연 진행

높이 받들고 선군혁명군악의 포성을 힘차게 울려가는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을 보기 위해 모여온 관람자들이 차고넘어났다. 김춘섭 자강도당위원회 책임비서를 비롯한 도의 책임일꾼들, 로동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남성합창 《조선인민군가》로 시작한 공연무대에는 관현악과 노래연곡 《대양을 우러러 부르는 노래》, 남성독창과 남성합창 《우리는 빈터에서 시작하였네》, 《속북받은 나의 삶》, 남성합창 《우리 앞날

## 자강도에서 첫 공연 진행

다》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나왔다. 출연자들은 탁월한 사상과 정력적인 령도로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 주시어 태양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믿음직하게 지킬수 있는 언덕기틀을 다져주시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격조높이 구가하였다.

최악의 역경속에서 조국의 천만년미래를 내다보시며 최첨단들과의 불길을 지켜주시고 강성국가건설위업을 진두에서 이끄신 아버지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경모

## 혁명의 신심을 백배해주는 혁명군악의 힘찬 포성

의 정이 넘치는 남성합창 《아버지장군님 고맙습니다》, 혼성2중창과 남성합창 《자강도는 내 나라의 자랑도일세》가 장내를 진감하였다.

지난날 사람 못살 구역한 곳으로 버림받던 자강당을 CNC화의 고향으로, 인민의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는 살기도 좋고 일하기도 좋은 낙원으로 전면시켜주시신 백두산철새위인들에 대한 추가를 들으며 관람자들은 뜨거운 격정을 감지 못하였다. 최후승리의 진군가를 군단포의 최성마냥

## 혁명의 신심을 백배해주는 혁명군악의 힘찬 포성

터쳐울리는 공연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준엄한 혁명의 년대들마다에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위적역할을 수행하여온 잊지 못할 나날들을 긍지높이 돌이켜보았다.

강계정신의 창조자, 최첨단들과의 선구자, 새 세계 산업혁명의 개척자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아주며 공연무대에 남성합창 《원수님을 당할자 없다》, 여성4중창 《우리 원수님》, 남성독창과 남성합창 《내 심장의 목소리》, 남성합창 《영사들은 행군해간다》, 《우리의 총창우에 평화

## 혁명의 신심을 백배해주는 혁명군악의 힘찬 포성

가 있다》가 나왔다. 관람자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는 노래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념원을 이 땅 위에 활짝 꽃피우시기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대원수님을 충성다해 받들어갈 우리 로동계급의 드립없는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보여주었다.

조선속도창조의 불길높이 당의 병진로선 관철에서 날에날마다 눈부신 기적과 혁신을 이룩해나가는 자강도의 로동계급에게 승리의 신심을 백배해준 공연은 관람자들의 대열찬을 받았다. 공훈국가합창단의 순회공연은 계속된다.



# 자력갱생의 전통을 영원히 빛내이리

### 통성기계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

어버이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이 시각 통성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가슴마다에 차고넘어치는것은 1960년대의 그날로부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자기들의 일터를 찾고 또 찾으신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은 뜻깊은 나날들로 소중히 간직되어있다. 주제 56(1967)년 8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통성기계공장(당시)을 또다시 찾으신것은 1960년대의 그날로부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자기들의 일터를 찾고 또 찾으신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보다 이곳을 찾아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통성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자력갱생의 전통을 빛내어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이바지하는 더 많은 대형기계설비들을 만들어 아버지수령님께서 기쁨을 드리라고 하시며 그들의 가슴마다에 새로운 비약의 불씨를 심어주시였다.

2.0m형형정, 1.8m타원반, 성강의 수평타조기, 서두수발전기의 발전설비, 70m 대형 문형정삭반, 1만르베스, 흥남의 대형압축기... 정녕 나라의 대규모기계제작까지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심혈과 로고는 1970년대에 이어 1980년대의 1990년대에 통성의 로동계급이 나라의 자립적공업발전에서 이바지하는 위훈의 창조물들을 알아오게 한 근본원인이였다.

우리 나라 중공업의 얼굴로 더욱 빛을 뿌리며 당에서 준 과업이런 무었이나 만들어 내는 영웅적인 기업소, 기업소의 강화발전에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는 지금 통성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심정마다에서 애국충정의 붉은 피가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적 령도를 앞장에서 받들어가는 길에서 통성의 자력갱생의 력사와 전통을 영원히 빛내이리.

위대한 장군님께서 농업 부문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을 빛내어 갈 열의를 안고 모내기 전투를 적기에 질적으로 끝낸 통천, 염주군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그 기세로 농작물비배관리를 다그치고있다. 농촌들에서 집단적혁신이 창조되고있는 가운데는 두벌, 강냉이밭 세벌기 매기를 끝냈거나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있는 농장들이 늘어나고있으며 비료시비를 비롯한 다른 공정들을 질량적으로 원만히 수행하는데서 좋은 성과가 기록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적 령도를 앞장에서 받들어가는 길에서 통성의 자력갱생의 력사와 전통을 영원히 빛내이리.



# 현명한 령도가 안아온 재굴의 대형화, 현대화

### 통양광산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재굴의 대형화, 현대화가 빛나고 실현된 통양광산에서 다량채굴, 다량처리, 우량한 동승이 오늘도 힘있게 울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 주신 아버지수령님의 유훈과 당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그것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야 합니다.》 지난 10년여간 광산의 거의 모든 정들이 대형채굴장으로 전변되었다. 마그네사이트광석생산은 지난 시기에 비할바없이 높아졌으며 광산의 물질기술적토대는 튼튼히 다져졌다. 세기를 이어가며 청춘광산으로 자랑될치고있는 백금산의 전변은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를 떠나 생각할 수 없다.

3배로 올리겠다는 보고를 받고 시고 우리 장군님 얼마나 기쁘시였으면 밀고있는 수천 리길을 한달음에 오시였으랴. 주제 98(2009)년 5월, 무소 안전모를 쓰시고 석수호르는 막장에서 들어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대형채굴장에서의 재굴작업을 총검게 하고있는 광부들의 작업모습을 오래도록 기억속에 보아주시였다. 력사의 그날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뜻을 심장에 새긴 광산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재굴의 대형화를 더욱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여왔다. 광산일꾼들은 생산활동의 과학화를 위한 투쟁에서 로동자, 기술자들을 불러일으켜 컴퓨터에 의한 종합적인 생산자력평가를 확립하였으며 재굴설비들의 현대화도 적극 추진하였다. 통양광은 비약의 나래를 더 활짝 폈다. 6월5일경의 대형화실현에 이어 금산경, 청령봉 재굴장들의 대형화를 련속 실현한 광

북부지대 농촌들이 집단적 경쟁열풍으로 뿔고있다. 감자 농사의 불길을 지켜주시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빛내어갈 의지로 떨쳐나선 대흥단군, 삼지연군, 백암군, 장진군, 부진군들의 농업근로자들이 감자심기를 적기에 질적으로 끝낸 기세로 가꾸어주시는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감자농사에서 전환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10여년전 인민들의 먹는 문제 해결에서 전환을 가져오실 송고한 뜻을 안으시고 백두산천리봉을 오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북부지대 감자

산지에서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일데 대하여 가르쳐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고 감자심기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사회주의경쟁의 불길높이 감자밭가꾸기에 애국혁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치고있다. 대흥단군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감자밭가꾸기를 전투적으로 하고있다. 신흥농장에서 보여주시는 투쟁을 진행하는 모든 농장들이 농사일을 과학기술적으로 하도록 하는데 힘을 넣도록 하고있다. 그러하여 농사동, 흥안농장을 비롯한 많은 농장들

이 보답의 알찬 열매를 주렁주렁 한마음으로 날마다 실적을 올리고있다. 부진군 농업근로자들도 감자농사를 잘 지어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할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겸사 겸사 열의높이 매일 실적을 올리고있다. 사회주의농촌해탈표 50돐이 되는 올해에 기어이 만풍년을 안아올 겸사의 각오를 안고 떨쳐나선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앞서 나가시려서니 하면서 뛰고 두 뛰고있다. 삼수, 감산, 풍서군을 비롯한 많은 군에서도 사회주의경쟁의 불길높이 감자비배관리를 힘있게 벌이고있다. 부진군 농민들이 감자밭가꾸기를 힘있게 벌이고있다. 부진군 농민들이 감자밭가꾸기를 힘있게 벌이고있다. 부진군 농민들이 감자밭가꾸기를 힘있게 벌이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농업 부문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을 빛내어 갈 열의를 안고 모내기 전투를 적기에 질적으로 끝낸 통천, 염주군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그 기세로 농작물비배관리를 다그치고있다. 농촌들에서 집단적혁신이 창조되고있는 가운데는 두벌, 강냉이밭 세벌기 매기를 끝냈거나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있는 농장들이 늘어나고있으며 비료시비를 비롯한 다른 공정들을 질량적으로 원만히 수행하는 데서 좋은 성과가 기록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적 령도를 앞장에서 받들어가는 길에서 통성의 자력갱생의 력사와 전통을 영원히 빛내이리.





#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인민의 지향과 의지는 그 누구도 꺾을수 없다

## 6월인민항쟁렬사들의 고귀한 넋은 살아있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이 외세와 매국노들을 반대하여 대중적인 6월인민항쟁에 떨쳐나섰던 그 때로부터 2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겨레는 외세의 식민지 지배와 그 주주들의 독재통치를 끝까지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새세상을 안아오기 위해 대중적으로 들고일어나 끊임없이 용감하게 싸운 항쟁용사들을 기억하고 있다.

6월인민항쟁은 남조선인민들의 반미반파쇼투쟁사에 아로새겨진 전진로운 전진항쟁이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6월인민항쟁은 남조선에서 오래 동안 지속되여온 군사파쇼독재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11월의 식민지 통치를 크게 뒤흔들어놓았습니다.》

6월인민항쟁은 전대미문의 사대매국행위와 파쇼폭압, 반통일책동을 일삼던 전두환일당과 그들을 사육하여 남조선의 겨레의 영구적인 식민지로 만들려는 미제에 대한 인민들의 쌓이고 쌓인 분노의 폭발이었다.

《유신》독재의 종말이후 후르던 민주화의 싸움을 총괄고 짓밟고 쿠데타로 권력을 강탈한 피뢰군부패세력은 외세를 등에 업고 몰서리치는 군부독재통치로 남조선사회를 인간생지옥으로 전락시켰다. 군부파쇼파들에 대한 인민들의 증오와 분노는 날로 커져갔다.

1987년 4월 중순부터 남조선에서는 군부독재를 반대하는 민주화투쟁의 폭풍이 휘몰아쳤다.

그러나 전두환연도는 군부독재《정권》을 연장하기 위해 《4.13특별조치》라는 것을 발표하고 파쇼적인 현행《헌법》에 의한 《대통령》선거를 시도하였다.

분노한 인민들은 항쟁에 총력을 기울였다. 투쟁은 전두환연도가 군사강제이며 광우대학살의 공범자인 로태우를 《대통령》후보로 지명할것을 계기로 하여 6월 10일 대중적인 항쟁으로 번져갔다. 투

쟁의 불길은 삼시에 서울과 부산, 대구와 광주, 목포와 제주 등 전지역으로 퍼져갔다. 청년학생, 노동자, 사무원, 종교인들과 학계, 언론계, 재야인사 등 각계각층 인민들은 《호헌철폐》, 《직선제개헌》, 《독재타도》, 《미제추출》, 《민족통일》의 구호를 웨치며 격렬하게 투쟁하였다. 그들은 군부독재통치를 비호두둔하는 장본인은 미국이라고 단죄유란하면서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내정간섭과 군사적강점을 끝낼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당황한 군사장관들이 《갑호비상경계령》을 내리고 수많은 전투경찰들을 동원하여 최루탄을 쏘아대며 무차별적인 탄압소동에 광분하였지만 격노한 인민들의 투쟁기세를 억누를수 없었다.

인민들의 단결되고 완강한 항거정신 앞에 더는 건질수 없게 된 전두환연도는 과거의 《유신》독재체제를 공공연히 미화하고 적국 부활시키면서 파쇼폭압으로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인민들의 지향을 약탈하게 가로막고있다. 피뢰집권세력은 《유신》독재시기의 악명높은 파쇼체제를 고스란히 되살리고 그에 기초하여 반인민적약탈과 인민들에 대한 야수적인 탄압에 광분하고있다. 독재정치가 반기를 들었다고 하여 합법적인 정당, 단체, 언론기관들을 《총부속》으로 몰아 탄압하고있으며 사상과 표현의 자유, 초보적인 인권마저 무참히 유린하고있다. 하여 남조선에서는 인민들이 피뢰제 정취한 사회화의 열매가 모조리 짓밟히고있다.

최근 남조선에서 일어난 《세월》호대참사와 고귀한 넋은 오늘날 남조선인민들을 반미자주화와 반파쇼인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한 대중적투쟁에 또 부르고있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외세의 지배와 그 앞잡이들의 독재통치가 지속되고있다. 《정권》은 여러차례 교체되었지만 미국의 로물적인 간섭과 배후조종에 의해 외세의 침과 파쇼독재, 반통일의 범죄력사는 지금도 이어지고있다.

6월인민항쟁용사들의 고귀한 투쟁정신과 고귀한 넋은 오늘날 남조선인민들을 반미자주화와 반파쇼인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한 대중적투쟁에 또 부르고있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외세의 지배와 그 앞잡이들의 독재통치가 지속되고있다. 《정권》은 여러차례 교체되었지만 미국의 로물적인 간섭과 배후조종에 의해 외세의 침과 파쇼독재, 반통일의 범죄력사는 지금도 이어지고있다.

6월인민항쟁은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밀부려져 뒤흔들고 남조선인민들의 반독재민주화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렸다. 항쟁은 정의를 잃어 버린 인민대중의 힘은 그 누구도 당해줄수 없으며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남조선의 모든 애국적민주력들이 하나의 뜻으로 굳게 단결하여 투쟁해나갈 때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립증해주었다.

6월인민항쟁용사들의 고귀한 투쟁정신과 고귀한 넋은 오늘날 남조선인민들을 반미자주화와 반파쇼인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한 대중적투쟁에 또 부르고있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외세의 지배와 그 앞잡이들의 독재통치가 지속되고있다. 《정권》은 여러차례 교체되었지만 미국의 로물적인 간섭과 배후조종에 의해 외세의 침과 파쇼독재, 반통일의 범죄력사는 지금도 이어지고있다.

6월인민항쟁은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밀부려져 뒤흔들고 남조선인민들의 반독재민주화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렸다. 항쟁은 정의를 잃어 버린 인민대중의 힘은 그 누구도 당해줄수 없으며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남조선의 모든 애국적민주력들이 하나의 뜻으로 굳게 단결하여 투쟁해나갈 때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립증해주었다.

6월인민항쟁은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밀부려져 뒤흔들고 남조선인민들의 반독재민주화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렸다. 항쟁은 정의를 잃어 버린 인민대중의 힘은 그 누구도 당해줄수 없으며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남조선의 모든 애국적민주력들이 하나의 뜻으로 굳게 단결하여 투쟁해나갈 때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립증해주었다.

6월인민항쟁은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밀부려져 뒤흔들고 남조선인민들의 반독재민주화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렸다. 항쟁은 정의를 잃어 버린 인민대중의 힘은 그 누구도 당해줄수 없으며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남조선의 모든 애국적민주력들이 하나의 뜻으로 굳게 단결하여 투쟁해나갈 때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립증해주었다.

6월인민항쟁은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밀부려져 뒤흔들고 남조선인민들의 반독재민주화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렸다. 항쟁은 정의를 잃어 버린 인민대중의 힘은 그 누구도 당해줄수 없으며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남조선의 모든 애국적민주력들이 하나의 뜻으로 굳게 단결하여 투쟁해나갈 때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립증해주었다.

6월인민항쟁은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밀부려져 뒤흔들고 남조선인민들의 반독재민주화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렸다. 항쟁은 정의를 잃어 버린 인민대중의 힘은 그 누구도 당해줄수 없으며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남조선의 모든 애국적민주력들이 하나의 뜻으로 굳게 단결하여 투쟁해나갈 때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립증해주었다.

6월인민항쟁은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밀부려져 뒤흔들고 남조선인민들의 반독재민주화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렸다. 항쟁은 정의를 잃어 버린 인민대중의 힘은 그 누구도 당해줄수 없으며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남조선의 모든 애국적민주력들이 하나의 뜻으로 굳게 단결하여 투쟁해나갈 때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립증해주었다.

6월인민항쟁은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밀부려져 뒤흔들고 남조선인민들의 반독재민주화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렸다. 항쟁은 정의를 잃어 버린 인민대중의 힘은 그 누구도 당해줄수 없으며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남조선의 모든 애국적민주력들이 하나의 뜻으로 굳게 단결하여 투쟁해나갈 때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립증해주었다.

6월인민항쟁은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밀부려져 뒤흔들고 남조선인민들의 반독재민주화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렸다. 항쟁은 정의를 잃어 버린 인민대중의 힘은 그 누구도 당해줄수 없으며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남조선의 모든 애국적민주력들이 하나의 뜻으로 굳게 단결하여 투쟁해나갈 때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립증해주었다.

6월인민항쟁은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밀부려져 뒤흔들고 남조선인민들의 반독재민주화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렸다. 항쟁은 정의를 잃어 버린 인민대중의 힘은 그 누구도 당해줄수 없으며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남조선의 모든 애국적민주력들이 하나의 뜻으로 굳게 단결하여 투쟁해나갈 때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립증해주었다.

6월인민항쟁은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밀부려져 뒤흔들고 남조선인민들의 반독재민주화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렸다. 항쟁은 정의를 잃어 버린 인민대중의 힘은 그 누구도 당해줄수 없으며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남조선의 모든 애국적민주력들이 하나의 뜻으로 굳게 단결하여 투쟁해나갈 때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립증해주었다.

6월인민항쟁은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밀부려져 뒤흔들고 남조선인민들의 반독재민주화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렸다. 항쟁은 정의를 잃어 버린 인민대중의 힘은 그 누구도 당해줄수 없으며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남조선의 모든 애국적민주력들이 하나의 뜻으로 굳게 단결하여 투쟁해나갈 때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립증해주었다.

6월인민항쟁은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밀부려져 뒤흔들고 남조선인민들의 반독재민주화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렸다. 항쟁은 정의를 잃어 버린 인민대중의 힘은 그 누구도 당해줄수 없으며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남조선의 모든 애국적민주력들이 하나의 뜻으로 굳게 단결하여 투쟁해나갈 때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립증해주었다.

들이 겪고있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최근이며 우리 민족의 통일을 가로막는 기본 장애이다. 미국은 남조선의 친미주주들을 내세워 파쇼독재통치를 실시하면서 사회의 자주적, 민주주의적발전들을 가로막고 조국통일을 악랄하게 방해하여왔다.

6월인민항쟁이후에도 끊임없이 계속 되여온 피뢰통치체들의 파쇼독재실시는 미국의 부당한 간섭과 배후조종 없이는 불가능하다. 더우기 미국은 그 무슨 《북의 위협》을 운운하며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악랄하게 추구하면서 북침전쟁도발소동을 미친 듯이 감행하는 한편 남조선당국자들을 동족대결로 부추기면서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위업을 엄중히 해치웠다.

현 피뢰집권자인 박근혜는 《유신》독재의 후에서서 군부파쇼독재세력과 땀과 땀을 없애는 관계에 있다. 박근혜정부는 과거의 《유신》독재체제를 공공연히 미화하고 적국 부활시키면서 파쇼폭압으로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인민들의 지향을 약탈하게 가로막고있다. 피뢰집권세력은 《유신》독재시기의 악명높은 파쇼체제를 고스란히 되살리고 그에 기초하여 반인민적약탈과 인민들에 대한 야수적인 탄압에 광분하고있다. 독재정치가 반기를 들었다고 하여 합법적인 정당, 단체, 언론기관들을 《총부속》으로 몰아 탄압하고있으며 사상과 표현의 자유, 초보적인 인권마저 무참히 유린하고있다. 하여 남조선에서는 인민들이 피뢰제 정취한 사회화의 열매가 모조리 짓밟히고있다.

최근 남조선에서 일어난 《세월》호대참사와 고귀한 넋은 오늘날 남조선인민들을 반미자주화와 반파쇼인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한 대중적투쟁에 또 부르고있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외세의 지배와 그 앞잡이들의 독재통치가 지속되고있다. 《정권》은 여러차례 교체되었지만 미국의 로물적인 간섭과 배후조종에 의해 외세의 침과 파쇼독재, 반통일의 범죄력사는 지금도 이어지고있다.

6월인민항쟁은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밀부려져 뒤흔들고 남조선인민들의 반독재민주화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렸다. 항쟁은 정의를 잃어 버린 인민대중의 힘은 그 누구도 당해줄수 없으며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남조선의 모든 애국적민주력들이 하나의 뜻으로 굳게 단결하여 투쟁해나갈 때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립증해주었다.

6월인민항쟁은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밀부려져 뒤흔들고 남조선인민들의 반독재민주화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렸다. 항쟁은 정의를 잃어 버린 인민대중의 힘은 그 누구도 당해줄수 없으며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남조선의 모든 애국적민주력들이 하나의 뜻으로 굳게 단결하여 투쟁해나갈 때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립증해주었다.

6월인민항쟁은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밀부려져 뒤흔들고 남조선인민들의 반독재민주화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렸다. 항쟁은 정의를 잃어 버린 인민대중의 힘은 그 누구도 당해줄수 없으며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남조선의 모든 애국적민주력들이 하나의 뜻으로 굳게 단결하여 투쟁해나갈 때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립증해주었다.

6월인민항쟁은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밀부려져 뒤흔들고 남조선인민들의 반독재민주화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렸다. 항쟁은 정의를 잃어 버린 인민대중의 힘은 그 누구도 당해줄수 없으며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남조선의 모든 애국적민주력들이 하나의 뜻으로 굳게 단결하여 투쟁해나갈 때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립증해주었다.

6월인민항쟁은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밀부려져 뒤흔들고 남조선인민들의 반독재민주화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렸다. 항쟁은 정의를 잃어 버린 인민대중의 힘은 그 누구도 당해줄수 없으며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남조선의 모든 애국적민주력들이 하나의 뜻으로 굳게 단결하여 투쟁해나갈 때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립증해주었다.

6월인민항쟁은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밀부려져 뒤흔들고 남조선인민들의 반독재민주화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렸다. 항쟁은 정의를 잃어 버린 인민대중의 힘은 그 누구도 당해줄수 없으며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남조선의 모든 애국적민주력들이 하나의 뜻으로 굳게 단결하여 투쟁해나갈 때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립증해주었다.

6월인민항쟁은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밀부려져 뒤흔들고 남조선인민들의 반독재민주화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렸다. 항쟁은 정의를 잃어 버린 인민대중의 힘은 그 누구도 당해줄수 없으며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남조선의 모든 애국적민주력들이 하나의 뜻으로 굳게 단결하여 투쟁해나갈 때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립증해주었다.

6월인민항쟁은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밀부려져 뒤흔들고 남조선인민들의 반독재민주화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렸다. 항쟁은 정의를 잃어 버린 인민대중의 힘은 그 누구도 당해줄수 없으며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남조선의 모든 애국적민주력들이 하나의 뜻으로 굳게 단결하여 투쟁해나갈 때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립증해주었다.

6월인민항쟁은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밀부려져 뒤흔들고 남조선인민들의 반독재민주화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렸다. 항쟁은 정의를 잃어 버린 인민대중의 힘은 그 누구도 당해줄수 없으며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남조선의 모든 애국적민주력들이 하나의 뜻으로 굳게 단결하여 투쟁해나갈 때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립증해주었다.

6월인민항쟁은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밀부려져 뒤흔들고 남조선인민들의 반독재민주화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렸다. 항쟁은 정의를 잃어 버린 인민대중의 힘은 그 누구도 당해줄수 없으며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남조선의 모든 애국적민주력들이 하나의 뜻으로 굳게 단결하여 투쟁해나갈 때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립증해주었다.

6월인민항쟁은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밀부려져 뒤흔들고 남조선인민들의 반독재민주화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렸다. 항쟁은 정의를 잃어 버린 인민대중의 힘은 그 누구도 당해줄수 없으며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남조선의 모든 애국적민주력들이 하나의 뜻으로 굳게 단결하여 투쟁해나갈 때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립증해주었다.

6월인민항쟁은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밀부려져 뒤흔들고 남조선인민들의 반독재민주화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렸다. 항쟁은 정의를 잃어 버린 인민대중의 힘은 그 누구도 당해줄수 없으며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남조선의 모든 애국적민주력들이 하나의 뜻으로 굳게 단결하여 투쟁해나갈 때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립증해주었다.

6월인민항쟁은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밀부려져 뒤흔들고 남조선인민들의 반독재민주화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렸다. 항쟁은 정의를 잃어 버린 인민대중의 힘은 그 누구도 당해줄수 없으며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남조선의 모든 애국적민주력들이 하나의 뜻으로 굳게 단결하여 투쟁해나갈 때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립증해주었다.

6월인민항쟁은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밀부려져 뒤흔들고 남조선인민들의 반독재민주화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렸다. 항쟁은 정의를 잃어 버린 인민대중의 힘은 그 누구도 당해줄수 없으며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남조선의 모든 애국적민주력들이 하나의 뜻으로 굳게 단결하여 투쟁해나갈 때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립증해주었다.

6월인민항쟁은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밀부려져 뒤흔들고 남조선인민들의 반독재민주화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렸다. 항쟁은 정의를 잃어 버린 인민대중의 힘은 그 누구도 당해줄수 없으며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남조선의 모든 애국적민주력들이 하나의 뜻으로 굳게 단결하여 투쟁해나갈 때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립증해주었다.

예측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신프로세스》, 《드레드멘선언》이니 하는것들을 내리고 북남관계를 체제대결과 전쟁의 극단으로 몰아가고있다.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에 정면으로 도전하여 반공화국 핵소송과 《인권》모략소송에 열을 올리고 《리 리츨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으로 정세를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로 몰아간 것으로도 부족하여 지금 또다시 그 누구의 《도발》에 대해 떠들어대며 외세와의 군사적결력을 더욱 강화하고있는 박근혜당의 도발적당동은 온 민족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커다란 우려와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현실은 남조선에서 미국의 군사적강점과 친미보수세력의 파쇼독재통치를 끝까지 없애는 한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는 언제 가도 실현될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6월인민항쟁이 있는 때로부터 27년이라는 오늘까지도 항쟁의 거러들여 더운 피를 뿌린 용사들의 넋원이 짓밟히고있는것은 남조선인민들의 수치이다.

자주, 민주, 통일은 그 실현을 가로막는 독재자들을 반대하는 대중적이며 완강한 투쟁으로만 쟁취할수 있다.

독재자들은 스스로 몰서리지 않는다. 《세월》호침몰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남조선 각계의 투쟁을 폭력적으로 무자비하게 탄압하고있는 박근혜정권의 야수적당동도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6월인민항쟁렬사들의 고귀한 넋은 살아있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한결같이 남조선의 과거의 의사와 요구를 총칼로 억누르며 오만하게 날뛰는 반역무리들을 파멸의 구렁텅이에 처박기 위한 대중적투쟁의 불길은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야 할것이다.

승리는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곱잡없이 싸우는 남조선인민들에게만 오라 설하

《유신》독재가 무효화된 후속사 회

박근혜가 제 예비인 《유신》독재시기의 정치혁명에 회부되는 것만으로도 의견을 낼수 없게 하고있으며 비서관들과 보좌관들은 언제 어느 순간에 박근혜의 눈밖에 날지 몰라 불안에 잠겨있다.

박근혜역도가 《국회》와 야당을 철저히 무시하고 여당을 자기의 거수기로 만들었다면 박근혜 역시 《국회》와 《새누리당》을 물러러고 만들고 모든 문제들을 독단으로 처리하는가 하면 야당은 아예 상대조차 할지 않아 《불통대통령》으로 악명을 떨치고있다.

박근혜는 《유신》독재시기 통치기구를 전면적으로 되살리고 있다. 외교, 안보, 통일문제를 총괄한다고 하는 청와대안보실은 박근혜가 1963년에 내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부활시킬것이다. 그는 피뢰정보원을 《유신》독재시기의 중앙정보부와 같이 범우에 존재하는 폭압기구로 만들고 정치사찰, 수사, 처형을 마음대로 감행할수 있게 만들었다.

남조선에서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들이라고 하는 문화통영위원회, 《국민경제자문회의》, 《유신》독재시기의 중앙정보부와 같이 범우에 존재하는 폭압기구로 만들고 정치사찰, 수사, 처형을 마음대로 감행할수 있게 만들었다.

남조선에서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들이라고 하는 문화통영위원회, 《국민경제자문회의》, 《유신》독재시기의 중앙정보부와 같이 범우에 존재하는 폭압기구로 만들고 정치사찰, 수사, 처형을 마음대로 감행할수 있게 만들었다.

남조선에서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들이라고 하는 문화통영위원회, 《국민경제자문회의》, 《유신》독재시기의 중앙정보부와 같이 범우에 존재하는 폭압기구로 만들고 정치사찰, 수사, 처형을 마음대로 감행할수 있게 만들었다.

남조선에서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들이라고 하는 문화통영위원회, 《국민경제자문회의》, 《유신》독재시기의 중앙정보부와 같이 범우에 존재하는 폭압기구로 만들고 정치사찰, 수사, 처형을 마음대로 감행할수 있게 만들었다.

남조선에서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들이라고 하는 문화통영위원회, 《국민경제자문회의》, 《유신》독재시기의 중앙정보부와 같이 범우에 존재하는 폭압기구로 만들고 정치사찰, 수사, 처형을 마음대로 감행할수 있게 만들었다.

남조선에서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들이라고 하는 문화통영위원회, 《국민경제자문회의》, 《유신》독재시기의 중앙정보부와 같이 범우에 존재하는 폭압기구로 만들고 정치사찰, 수사, 처형을 마음대로 감행할수 있게 만들었다.

남조선에서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들이라고 하는 문화통영위원회, 《국민경제자문회의》, 《유신》독재시기의 중앙정보부와 같이 범우에 존재하는 폭압기구로 만들고 정치사찰, 수사, 처형을 마음대로 감행할수 있게 만들었다.

남조선에서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들이라고 하는 문화통영위원회, 《국민경제자문회의》, 《유신》독재시기의 중앙정보부와 같이 범우에 존재하는 폭압기구로 만들고 정치사찰, 수사, 처형을 마음대로 감행할수 있게 만들었다.

남조선에서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들이라고 하는 문화통영위원회, 《국민경제자문회의》, 《유신》독재시기의 중앙정보부와 같이 범우에 존재하는 폭압기구로 만들고 정치사찰, 수사, 처형을 마음대로 감행할수 있게 만들었다.

남조선에서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들이라고 하는 문화통영위원회, 《국민경제자문회의》, 《유신》독재시기의 중앙정보부와 같이 범우에 존재하는 폭압기구로 만들고 정치사찰, 수사, 처형을 마음대로 감행할수 있게 만들었다.

남조선에서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들이라고 하는 문화통영위원회, 《국민경제자문회의》, 《유신》독재시기의 중앙정보부와 같이 범우에 존재하는 폭압기구로 만들고 정치사찰, 수사, 처형을 마음대로 감행할수 있게 만들었다.

남조선에서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들이라고 하는 문화통영위원회, 《국민경제자문회의》, 《유신》독재시기의 중앙정보부와 같이 범우에 존재하는 폭압기구로 만들고 정치사찰, 수사, 처형을 마음대로 감행할수 있게 만들었다.

남조선에서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들이라고 하는 문화통영위원회, 《국민경제자문회의》, 《유신》독재시기의 중앙정보부와 같이 범우에 존재하는 폭압기구로 만들고 정치사찰, 수사, 처형을 마음대로 감행할수 있게 만들었다.

남조선에서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들이라고 하는 문화통영위원회, 《국민경제자문회의》, 《유신》독재시기의 중앙정보부와 같이 범우에 존재하는 폭압기구로 만들고 정치사찰, 수사, 처형을 마음대로 감행할수 있게 만들었다.

남조선에서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들이라고 하는 문화통영위원회, 《국민경제자문회의》, 《유신》독재시기의 중앙정보부와 같이 범우에 존재하는 폭압기구로 만들고 정치사찰, 수사, 처형을 마음대로 감행할수 있게 만들었다.

남조선에서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들이라고 하는 문화통영위원회, 《국민경제자문회의》, 《유신》독재시기의 중앙정보부와 같이 범우에 존재하는 폭압기구로 만들고 정치사찰, 수사, 처형을 마음대로 감행할수 있게 만들었다.

남조선에서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들이라고 하는 문화통영위원회, 《국민경제자문회의》, 《유신》독재시기의 중앙정보부와 같이 범우에 존재하는 폭압기구로 만들고 정치사찰, 수사, 처형을 마음대로 감행할수 있게 만들었다.

청와대안에서도 독선과 전횡으로 자기의 일방적인사안을 내리막치면서 누구도 의견을 낼수 없게 하고있으며 비서관들과 보좌관들은 언제 어느 순간에 박근혜의 눈밖에 날지 몰라 불안에 잠겨있다.

박근혜역도가 《국회》와 야당을 철저히 무시하고 여당을 자기의 거수기로 만들었다면 박근혜 역시 《국회》와 《새누리당》을 물러러고 만들고 모든 문제들을 독단으로 처리하는가 하면 야당은 아예 상대조차 할지 않아 《불통대통령》으로 악명을 떨치고있다.

박근혜는 《유신》독재시기 통치기구를 전면적으로 되살리고 있다. 외교, 안보, 통일문제를 총괄한다고 하는 청와대안보실은 박근혜가 1963년에 내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부활시킬것이다. 그는 피뢰정보원을 《유신》독재시기의 중앙정보부와 같이 범우에 존재하는 폭압기구로 만들고 정치사찰, 수사, 처형을 마음대로 감행할수 있게 만들었다.

남조선에서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들이라고 하는 문화통영위원회, 《국민경제자문회의》, 《유신》독재시기의 중앙정보부와 같이 범우에 존재하는 폭압기구로 만들고 정치사찰, 수사, 처형을 마음대로 감행할수 있게 만들었다.

남조선에서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들이라고 하는 문화통영위원회, 《국민경제자문회의》, 《유신》독재시기의 중앙정보부와 같이 범우에 존재하는 폭압기구로 만들고 정치사찰, 수사, 처형을 마음대로 감행할수 있게 만들었다.

남조선에서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들이라고 하는 문화통영위원회, 《국민경제자문회의》, 《유신》독재시기의 중앙정보부와 같이 범우에 존재하는 폭압기구로 만들고 정치사찰, 수사, 처형을 마음대로 감행할수 있게 만들었다.

남조선에서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들이라고 하는 문화통영위원회, 《국민경제자문회의》, 《유신》독재시기의 중앙정보부와 같이 범우에 존재하는 폭압기구로 만들고 정치사찰, 수사, 처형을 마음대로 감행할수 있게 만들었다.

남조선에서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들이라고 하는 문화통영위원회, 《국민경제자문회의》, 《유신》독재시기의 중앙정보부와 같이 범우에 존재하는 폭압기구로 만들고 정치사찰, 수사, 처형을 마음대로 감행할수 있게 만들었다.

남조선에서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들이라고 하는 문화통영위원회, 《국민경제자문회의》, 《유신》독재시기의 중앙정보부와 같이 범우에 존재하는 폭압기구로 만들고 정치사찰, 수사, 처형을 마음대로 감행할수 있게 만들었다.

남조선에서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들이라고 하는 문화통영위원회, 《국민경제자문회의》, 《유신》독재시기의 중앙정보부와 같이 범우에 존재하는 폭압기구로 만들고 정치사찰, 수사, 처형을 마음대로 감행할수 있게 만들었다.

남조선에서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들이라고 하는 문화통영위원회, 《국민경제자문회의》, 《유신》독재시기의 중앙정보부와 같이 범우에 존재하는 폭압기구로 만들고 정치사찰, 수사, 처형을 마음대로 감행할수 있게 만들었다.

남조선에서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들이라고 하는 문화통영위원회, 《국민경제자문회의》, 《유신》독재시기의 중앙정보부와 같이 범우에 존재하는 폭압기구로 만들고 정치사찰, 수사, 처형을 마음대로 감행할수 있게 만들었다.

남조선에서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들이라고 하는 문화통영위원회, 《국민경제자문회의》, 《유신》독재시기의 중앙정보부와 같이 범우에 존재하는 폭압기구로 만들고 정치사찰, 수사, 처형을 마음대로 감행할수 있게 만들었다.

남조선에서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들이라고 하는 문화통영위원회, 《국민경제자문회의》, 《유신》독재시기의 중앙정보부와 같이 범우에 존재하는 폭압기구로 만들고 정치사찰, 수사, 처형을 마음대로 감행할수 있게 만들었다.

남조선에서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들이라고 하는 문화통영위원회, 《국민경제자문회의》, 《유신》독재시기의 중앙정보부와 같이 범우에 존재하는 폭압기구로 만들고 정치사찰, 수사, 처형을 마음대로 감행할수 있게 만들었다.

남조선에서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들이라고 하는 문화통영위원회, 《국민경제자문회의》, 《유신》독재시기의 중앙정보부와 같이 범우에 존재하는 폭압기구로 만들고 정치사찰, 수사, 처형을 마음대로 감행할수 있게 만들었다.

남조선에서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들이라고 하는 문화통영위원회, 《국민경제자문회의》, 《유신》독재시기의 중앙정보부와 같이 범우에 존재하는 폭압기구로 만들고 정치사찰, 수사, 처형을 마음대로 감행할수 있게 만들었다.

남조선에서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들이라고 하는 문화통영위원회, 《국민경제자문회의》, 《유신》독재시기의 중앙정보부와 같이 범우에 존재하는 폭압기구로 만들고 정치사찰, 수사, 처형을 마음대로 감행할수 있게 만들었다.

남조선에서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들이라고 하는 문화통영위원회, 《국민경제자문회의》, 《유신》독재시기의 중앙정보부와 같이 범우에 존재하는 폭압기구로 만들고 정치사찰, 수사, 처형을 마음대로 감행할수 있게 만들었다.

남조선에서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들이라고 하는 문화통영위원회, 《국민경제자문회의》, 《유신》독재시기의 중앙정보부와 같이 범우에 존재하는 폭압기구로 만들고 정치사찰, 수사, 처형을 마음대로 감행할수 있게 만들었다.

남조선에서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들이라고 하는 문화통영위원회, 《국민경제자문회의》, 《유신》독재시기의 중앙정보부와 같이 범우에 존재하는 폭압기구로 만들고 정치사찰, 수사, 처형을 마음대로 감행할수 있게 만들었다.

박근혜의 심복부하이다. 김기춘은 피뢰정권의 5대 권력기관으로 불리우는 정보원, 감사원, 검찰, 경찰, 국제청의 우두머리